

지방화·세계화와 지방의 역할증대

김동완 / 행정자치부 재정과
장

21세기 초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주변은 세계화라는 도도한 물결이 지방화·분권화와 함께 지방의 대응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60~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해야 했던 만큼 어려운 과제로 다가설 것이다.

최근 참여정부 하에서 지방분권이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면서 세계화는 우리들 관심에서 다소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서민생활의 근거지가 되었던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가 문을 닫고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외국투자자들이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변동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화가 우리들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년 초 전라북도에서 발주액 기준으로 244억원 이상의 국제입찰대상을 국내입찰에

불인 일이 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민원협조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국제입찰에 부의하도록 구두 권고를 하였다. 아마 전북에서도 지역업체의 입장과 계약관련 법규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이 국내입찰을 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입찰일 하루 앞두고 미국계 회사에서 강력한 항의가 제기되어 지방재정법규를 검토한 결과, 행자부장관은 전북지사의 입찰을 직권 중지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에 이미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국제입찰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2년 기준으로 19건 정도 밖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조항에 대한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